

환율·노동환경 변화 등 제조업 체감경기 부정적

대한상의 조사, 올 1분기 BSI 86

국내 제조업체들은 1분기 체감경기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환율 불안, 글로벌 긴축기조, 노동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관측이 우세했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100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1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망치는 86으로 지난 4분기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기준치(100)를 넘어서진 못하며, 새해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 측은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만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아직은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새해 기업경영의 대외 불확실성을 묻는 질문에 환율변동(52.1%), 글로벌 긴축 기조(35.5%), 통상마찰 우려(28.6%), 북핵 리스크(24.7%) 등이 꼽혔다. 대내외인으로 노동환경 변화(68.8%),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52.0%), 가계부채(14.7%), 에너지 믹스 변화(9.3%) 등이 집계됐다.

/정준미 기자 21cindun@

>> 1면 '심상치 않은 원화 초강세...'서 계속

원·달러 환율 상저하고 패턴 예상

문제는 추가 하락폭이 얼마나 될 지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원화 강세를 완화할 만한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1050원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일 것이라 전망도 나왔다.

박은수 KDB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수출 가격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반영되면서 올 하반기 이후로는 원·달러 환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중 원·달러 환율 수준이 높은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출 기업들은 부담이다. 특히 달러 약세에 유가 강세까지 겹쳤다.

IBK경제연구소가 수출 중소기업 1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출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원·달러 환율은 1132.5원으로 조사됐다. /한상미 기자 smahn1@

한줄 News

정치·산업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올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밝힌다.

▲ 공식 통합절차에 돌입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4일 통합정당의 경장·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셰이프가드 공청회'에서 관세 부과에 부당함과 함께 미국 내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 세계적 반도체 기업 인텔의 PC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다.

금융·마켓·부동산

▲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2018년을 '종합금융그룹 도약의 해'로 삼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 올해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개별 기업의 독자적 재무상환 능력만 따져 매기는 '자체신용도' 제도가 도입된다.

▲ 새해 마수걸이 분양이 수도권 곳곳에서 진행된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과천, 김포, 하남지역의 물량이 많다.

유통&라이프

▲ 중국의 한국단체관광이 일부 허용됐지만 면세업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분위기다.

▲ 켈러현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으로 가격 상승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조 파업에... 현대차 부활 '급제동'

작년 이어 올해도 임단협 갈등
평일·철야 등 모든특근 거부에
각종 공사도 전면 중단하기로
기아·지엠도 노사갈등에 차질



4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대의원 및 현장위원들이 울산공장 본관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국내 완성차 업체의 '판형'인 현대자동차가 갈수록 악화되는 노사갈등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2년 연속 판매량 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차는 올해 해외 판매목표를 낮추고 내수 판매목표를 높이는 등 양적 성장을 포기했다. 그러나 노조는 새해 벽두부터 파업 카드를 꺼내들며 발목을 잡고 있다. 일찌감치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판매량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판매 실적은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시장의 침체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 68만8939대, 해외 381만5886대를 포함해 총 450만4825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대비 연간판매량이 6.5% 줄어든 수치다.

2016년에 이어 지난해도 글로벌 판매량이 감소한 것이어서 심각성이 크다.

해외판매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의 부진 영향에 다소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미국은 자동차 수요가 정체기에 진입한데다 경쟁이 격화됐다. 중국에서는 사드 보복으로 인한 반(反) 한국정서로 판매가 급감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내수판매는 선방했다. 현대차의 지난해 내수 판매량은 68만8939대로 전년 같은 기간 65만8642대와 비교해 4.5% 증가했다. 신형 그랜저와 코나, G70 등이 판매를 견인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사업관리 체계 고도화' '수익성 중심의 내실 강화' '미래 전략방향 구체화' 등 3개 키워드를 경영 과제로 제시하고 판매 목표도 467만5000대로 설정했다. 내수는 70만1000대, 해외는 397만4000대다. 이는 지난해 판매목표인 508만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각오를 다진 현대차가 연초부터 안방에서 큰 벽에 부딪히고 있다. 바로 '노조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판매를 이끌고 있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걱정이 크다.

지난해 7월 출시된 코나는 등장과 함께 돌풍을 일으켰다. 8월부터 11

월까지 국내 SUV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노조가 11월말과 12월 파업을 진행하면서 12월 판매량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사측이 물량 확보를 위해 코나를 추가 생산하려 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지난해 11월 말 파업이 진행되면서 울산 1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다. 당시 파업으로 코나 1230여대, 175억 원가량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사측은 추정했다.

올해도 노사간 임금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노조는 또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조는 4일과 5일, 8일과 9일 4시간 파업을 진행한다. 오는 10일에는 6시간 부분 파업을 결의했다. 또 평일·철야를 포함한 모든 특근을 거부하고 각종 공사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결국 올해 양적 성장보다 내실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현대차 경영진과 노조간의 뚜렷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8월 8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협상을 마무리지은 쌍용차

는 생산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3년 연속 파업 없이 협상을 마무리지은 르노삼성은 완성차 중 지난해 생산량(26만4037대)이 유일하게 8% 이상 증가했다.

한편 현대차를 비롯해 지난해 임단협을 타결짓지 못한 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도 노사 갈등으로 피해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총 19차례 파업을 진행한 결과 약 1조3100여억원에 달하는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지엠은 지난 6월부터 부분파업을 벌인 창원공장이 현재까지 7000대 수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수출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의 침체와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로 수출기미를 겪고 있다"며 "향후 시장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노조 파업까지 이어지면 수 많은 업체(본사는 물론 협력사)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인천공항 2터미널, 셔틀운행·안내강화 등 혼란 최소화

이낙연 총리, 현황 점검
고객 혼란 최소화 만전



제2여객터미널 전경.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문을 여는 18일 이후 터미널을 잘못 찾아온 승객을 위해 1~2터미널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터미널을 혼동하는 승객이 없도록 항공편 예약 후 발송하는 전자항공권과 문자메시지 등에 터미널 안내와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개장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현황을 점검했다.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기존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한다. 4개 항공사 이용객은 앞으로 제2여객터미널로 가서 비행기를 탑승해야 한다. 아시아항공과 국내 저비용항공사(LC

C), 그 밖의 외국항공사는 기존 1터미널을 사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터미널 개장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셔틀버스 정차장, 철도 승차장, 주차장 등 주요 지역에 총 102명의 안내요

원을 배치해 이동교통 수단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E 티켓' 뒷면엔 제1·2여객터미널 위치도를 첨부한다. 제2여객터미널인 경우 알아보기 쉽게 큰 글씨 등으로 표기할 방침이다.

KTX와 공항철도는 제2여객터미널로 연장 운행한다. 공항버스도 제1여객터미널에 이어 순차 정차한다. 터미널을 잘못 찾아갔을 때 신속히 다시 이동할 수 있도록 두 개 터미널 간 셔틀버스를 5분 간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능력은 5400만명에서 7200만명으로 늘어난다. /양성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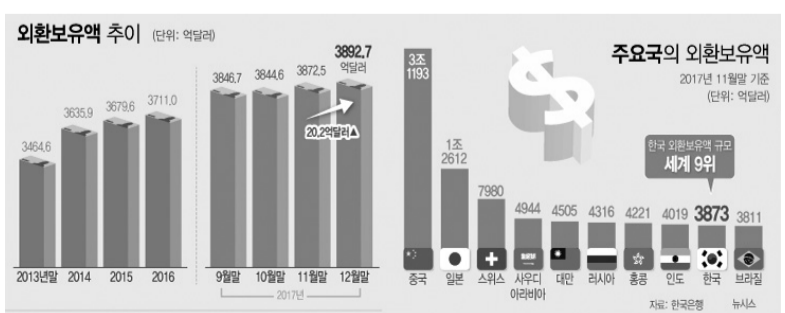
지난달 외환보유액 3893억 달러... 두 달 연속 '사상 최대'

달러화 약세·유가증 수익 영향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7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892억7000만 달러로 전월 말 3872억5000만 달러 대비 20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사상 최대 기록이다.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가 평가 절상되면서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것



으로 분석된다. 외환보유액은 통상 달러화로 환산해 표시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미 달러인덱스는 92.1로 한 달 새 1.0포인트 하

락한 반면 유로화, 파운드화는 미 달러 대비 각각 0.8포인트, 0.2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유가증권 수익과 만기 채권

상환자금 일부가 예치금으로 쌓였고 운용자산 수익이 확대된 것도 외환보유액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은 3588억3000만 달러로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 이어 예치금 206억5000만 달러(5.3%), 금 47억9000만 달러(1.2%), SDR 33억7000만 달러(0.9%), IMF포지션 16억2000만 달러(0.4%) 등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